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2, 피어선빌딩 6층 (소비자시민모임 내)
전화 02-761-7778 팩스 02-784-7778 (cicri.consumer@gmail.com)

문서번호 : 금소넷 1710_05

일 자 : 2017.12.5

제 목 : 대부업 광고 반대에 대한 의견

1. 국가 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2.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지난 2013년 9월 창립한 금융관련 시민, 소비자단체 연대기구로서 현재 금융소비자연맹 / 녹색소비자연대 / 한국소비자연맹 / 소비자시민모임 / 주빌리은행 / 경제민주화를위한민생연대 / 홈리스행동 해오름 / 한국YMCA전국연맹 / 금융정의연대 / C&I소비자연구소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3. 본회에서는 지상파 및 케이블, 종편 등에서 방송되고 있는 저축은행, 대부업 등에서의 대출권고 광고가 소비자 편익과 건전한 금융시장 환경 조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판단하에 광범위한 광고 제한 및 금지에 대한 캠페인을 펼쳐 왔습니다.
4. 이같은 광고는 “소액대출은 괜찮은 것이다. 약간의 생활편리성 같은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으며, 특히 아동 청소년 시기에 노출됨으로서 자신의 신용관리에 대한 지식과 관점이 명확히 수립되기도 전에 빚에 대해 관용적인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축의 중요성, 개인신용관리의 철저한 관리의 필요성 등에 대해 제대로된 메시지를 받는 경우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회의 생각과 걱정을 이해해 주시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윤미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운영위원장

010-6205-9263 cicri.consumer@gmail.com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 이성환 조연행 황선옥 양금숙

